

나주 친환경농공단지 건립 해결 실마리 찾나

나주 산포리는 지금



신포리 마을 지석묘군 표지판



천막농성장 주민들과 대화하는 강인규 시장



시청 앞 주차장에 설치된 천막농성장



공사가 중단된 나주시 왕곡면 신포리 현장. 뒷편으로 현재 가동중인 A사의 축산폐수처리장이 보인다.

주민 반대에 부딪힌 나주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건립사업이 무산 위기에서 벗어났다. 반면 주민의 농성이 계속되는 등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다.

〈나주시 사업비 교부〉 최근 나주시가 친환경 농업단지 건립을 위한 사업비(보조금)를 교부했다. 시는 지난 8월 사업비 90억원 가운데 2차 사업비 40억원을 교부하기로 결정해 사업취소로 인한 국·도비 반납을 면하게 됐다. 하지만 시는 '사업자 측이 주민과 잘 타협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사업자 측에 ▲약취제거 시스템 ▲폐수 방지 ▲주민 동의 등 3가지 전제조건을 내세워 사업을 승인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사업 승인 후 1년이 지나도록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나주시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시를 압박하고 있는 상태다.

사업자 측은 지난 23일 신포리 마을회관에서 찬성 측 주민 6명과 시청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나주시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립 공동사업법인 전덕환 대표는 "56 농가 중 40 농가(80%)의 동의서를 받아놓은 상태"라며 "설명회에서 마을회관도 짓고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수용하고 발전시키는데 서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만약 가능한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이주 등 안전장치로 공증을 해 놓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사업자 측은 설명회 내용을 시 건축허가과에 보고하고 어느 정도 주민동의가

필요 하는지를 시에 질의할 예정이다.

사업자 측은 "주민들이 냄새를 걱정하지만 최첨단시설인 완전 밀폐형이고, 퇴비를 만드는데 액비의 비율이 30%로 염려할 정도의 피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나주 축산농가의 규모로 볼 때 2012년 해양투기가 금지돼 축산폐수 정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상처리를 위해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규모의 시설을 5개 정도 건립하지 않으면 행정 이 무단방류 등 불법을 조장한 꼴이 된다"고 덧붙였다.

市, 사업비 40억 교부 결정 국·도비 반납은 면해 신포리 주민 반대농성 계속 사업자측, 민원 해소 관건

다"고 덧붙였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나주시 왕곡면 신포리 730번지 일원에 나주축협과 공산농협, 동성축산 영농법인이 '조공법인'을 설립해 국비 27억원과 도비 13억5000만원, 시비 31억5000만원, 자부담 18억원을 들여 올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주민 반대 여전〉 이 사업은 법인설립이 늦어져 1차 사업비 10억원이 불용금으로 반납돼 사업비가 100억원에서 90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민은 나주시도 마찬가지. 나주시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주민들

의 반대와 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 으로서 진퇴양난에 빠졌기 때문이다.

시는 90억원의 사업비를 살려 주민들의 의사도 존중하면서 주민과 사업자, 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강인규 시장은 지난 4일 사업 추진체인 나주축협의 불참 속에 시청앞 천막농성장을 찾아가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추진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강 시장은 "국·도비의 반납을 막기 위해서 우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되,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지 않으면 지급을 하지 않거나 건축허가 취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나주 관내에서 1일 축산분뇨 발생량은 약 2510t이다. 이 가운데 관내 분뇨처리 업체에서 처리되는 양은 910t이고, 나머지 1600t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반대에 여전하다. 나주시 왕곡면 신포리 주민들은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건립을 반대하며 38일째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나주시에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사업에 보조금지급 중단과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신포리 주민들은 지난달 17일부터 나주시에 '보조금 교부결정 반대'를 요구하며 시청 현관에서 철야농성을 해오다 최근 시청앞 주차장으로 옮겨 천막농성 중이다.

신포리 주정속 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은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건립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건립을 원한다면 농지까지도 모두 매입해주고 마을을 이주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사진 손영철기자 yacson@

나주혁신산단 투명성 강화 법적 장치 마련

출자 근거 명시 등 조례 제정 경영 감시 할 수 있게 명문화

나주시가 특수목적 법인인 나주혁신산단(주)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나주시는 "나주혁신산단(주)에 대한 출자의 근거를 마련하고 경영상황에 대한 점검과 경영지도,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회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177회 나주시 정례회에서 '나주 혁신산단 조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나주 혁신산단(주)에 대한 출자 근거를 명시하고 출자한도를 20%로 규정(제4조)했으며, 경영실적의 평가를 위해 나주시가 나주혁신산단(주)의 경영상황에 대한 점검과 경영지도(제6조)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매년 나주혁신산단(주)의 결산서를 제출받아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한편 시의회에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시의회의 참여와 경영감시가 가능토록 해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제10조)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시는 앞으로 나주혁신산단(주)으로 하여금 예산집행 일반 경영의 방법으로 계약 사무를 처리하도록 해 예산절감과 경영합리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전남소방본부 신규 소방공무원 44명 임용식



전남 소방본부(본부장 박정용)은 최근 나주소방서 4층 대회의실에서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식을 가졌다.

신규 임용된 소방공무원은 일반소방 19명과 구조 8명, 구급 17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해남 13명, 여수·강진·보성 각 6명, 순천 4명, 목포 3명, 나주·광양·담양·영암·영광·화산 각 1명 등 총 44

명이다. 박정용 본부장은 임용장 수여식에서 "안전한 환경 조성과 재난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해 도민에게 안전과 행복을 주는 119의 가치 실현에 온 힘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나주시 내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위해 여론 수렴

나주시가 내년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관리계획(재정비) 수립을 위해 여론수렴에 나섰다.

나주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각 부서장과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설명회를 가졌다.

시는 그동안 용역에 착수해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시민과 각계각층의 사회단체 및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시민이 참여하고, 계획하는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에 도시기본계획(안) 수립과

정에서 의견수렴을 완료하고, 중간보고 등 도시계획변경 방정결정 보고회를 열어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자료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도시 기본계획(변경) 및 도시 관리계획(재정비)안을 마련한 뒤 전남도에 제출, 2016년 하반기에 승인받을 예정이다.

강인규 시장은 설명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나주 도시계획의 미래상을 정립"하도록 주문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시내지국

광천	366-8375
광안	222-9440
담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신	675-5530
북광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우치	266-7601
웅봉	522-7752
우산	512-8116
원천	371-9818
중원	961-2339
중양	222-1896
중흥	224-8604
진철	673-1600
진단	973-2900
창평	224-8212
치평	376-6511
하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8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26-1601
군산시	063)467-2500	순천시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2**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 - 062 227-9600 | 신문구독 - 062 220-0551 | 예향구독 - 062 220-0550

광주일보 1952년 창간

“예향”은 광주일보사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입니다.